

도시 이곳저곳, 골목 사이사이를
두 발로 뚝뚝뚝 걸으며 즐기는 걷기지도책

부산

전주|춘천

걷기여행취재팀 지음

뚝뚝이들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여행

전북교육문화회관



EM138390

김영사



뚜벅이들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여행_부산·전주·춘천 편

저자 걷기여행취재팀 1판 1쇄 인쇄 2008. 6. 23. 1판 1쇄 발행 2008. 6. 27. 발행처 김영사 발행인 박은주 기획·진행 북케어(www.bookcare.net) 교정 이종현 일러스트 김은희 본문디자인 구름 DPT AD# 등록번호 제406-2003-036호 등록일자 1979. 5. 17 주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출판단지 515-1 우편번호 413-756, 마케팅부 031)955-3100, 편집부 031)955-3250, 팩시밀리 031)955-3111 ISBN 978-89-349-2992-5 03980 독자의견 전화 031)955-3200 홈페이지 <http://www.gimmyoung.com> 이메일 bestbook@gimmyoung.com 좋은 독자가 좋은 책을 만듭니다. 김영사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여행 1번지 남포동

01	자갈치시장	16
02	남포동 PIFF의 거리	18
03	부평동 족발 골목	20
04	강동시장 · 후평시장	22
05	남포동 국제시장	24
06	남포동 젊음의 거리	26
07	광복동 가이드	28
08	광복동 맛집	30
09	광복동 술집	32
10	영도 I	34
11	영도 II	36
12	부산 한 바퀴	38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네 중앙동 · 초량동

13	중앙동 40계단	42
14	돼지갈비 골목	44
15	상해거리 · 외국인거	46

모든 세대의 놀이터 광안리

16	광안리 맛집	50
17	광안리 낮	52
18	광안리 저녁	54

바다로 가자 해운대 바닷가

19	해운대 맛집	58
20	해운대 달맞이	60
21	해운대 시장통	62
22	장산 신도시	64

천 가지 이야기가 숨은 바다 기장

23	180번 버스	68
24	기차를 타고	70
25	기장시장	72





배고픈 청춘들을 초대함 경성대·부경대 앞

26	경성대 오른편_밥집	76
27	경성대 오른편_술집	78
28	경대닭골목	80
29	너무나 독특한 왼편 골목	82



부산의 대학가를 찾아서 부산대·동아대 앞

30	프롤레타리아 거리_맛집	86
31	프롤레타리아 거리_술집	88
32	부르주아 거리	90
33	쇼핑 거리	92
34	범어사에서 금샘로까지	94
35	동아대	96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젊음 서면

36	롯데백화점 후문통	100
37	서면시장통	102
38	서면 맛집	104
39	서면 저녁	106
40	오천낭 골목	108
41	로터리 북쪽	110



바다로 가자 풍성한 먹을거리와 볼거리

42	구포시장	114
43	부전시장	116
44	평화시장·자유시장	118



역사를 만나는 거리 동래

45	동래읍성을 따라	112
46	온천장에서 한나절	124



전주

01	한옥마을 볼거리	128
02	한옥마을 맛집	130
03	한옥마을 찻집	132
04	한옥마을 생활체험	134
05	영화의 거리	136
06	전통 맛 지도	138
07	전북대 앞	140
08	삼천동막걸리촌	142

춘천

01	공지천에서 중도까지	146
02	명동 닭갈비 골목	148
03	명동길	150
04	춘천시청길	152
05	소양2교 · 위도	154
06	소양호 가는 길	156
07	강대후문	158

저자 추천 코스

• 코스 1	부산의 역사를 따라서	161
• 코스 2	부산의 일상 속으로	162
• 코스 3	아이 손잡고 즐거운 나들이	163
• 코스 4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 바다 여행	164



01

전주의 사랑

한옥마을 볼거리

1930년대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반발하며 교동 일대에 한옥을 지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전주 한옥마을의 시작이다. 늘어나는 일본식 가옥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 현재 약 700여 채의 한옥이 남아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전통의 모습이 퇴색하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돌담을 따라 걸으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전통술박물관

옛날에는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들어 먹었다. 일제가 일반 가정에서 술 빙기를 금지하고 한국전쟁 이후 식량난을 겪으며 수천 종에 가깝던 전통주는 이제 30여 종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각종 전통주를 시음해 볼 수도 있어 좋다.

- 하절기 오전 9시~오후 7시 / 동절기 오전 9시~오후 6시
- 매주 월요일 ☎ 063)287-6305



최명희문학관

이미 고인이 된 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다양한 전시와 체험 마당이 준비되어 있다.

- 무료 ☎ 오전 10시~오후 6시
- 매주 월요일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 ☎ 063)284-0570



풍남문

1905년 동, 서, 북문은 일제에 의해 철거되고 남문만 남아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놓치기 쉬우나 전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인만큼 꼭 둘러보자.



전동성당

1914년 완공된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도 순교지 위에 서울 명동성당을 설계한 프와셀 신부가 설계를 했다. 처형이 이루어졌던 풍남문 성벽의 돌을 그대로 성당의 주춧돌로 사용해 성당이 그대로 성지가 되었다. 영화 '악삭'에서 전도연과 박신양이 눈물의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전주천

한옥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전주천은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어 여행자들에게 좋은 쉼터가 된다.

황손의 집



승광재

조선의 마지막 황손인 이석씨가 머물고 있는 곳



전주한방문화센터

국내 유일의 한의학 박물관이다. 한의학과 관련된 서적과 한약재들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 오전 10시~오후 7시 ㉡ 매주 월요일 ㉢ 무료



전주전통한지원

전주의 자랑인 한지의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한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각종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다.

경기전



1410년(태조10년)에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창건된 곳. 실제 영정은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울창한 대나무 숲을 지나면 경기전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전주사고 그리고 전주 이가의 시조와 시조비의 위패 조경묘를 둘러 볼 수 있다.

㉠ 무료 ㉡ 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 / 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

㉢ 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 / 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



오목대

한옥마을의 가장 위쪽에 있어 마을의 풍광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남원에서 왜적을 무찌르고 전주를 지나며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었다고, 용비어천가의 무대이기도 하다.

나며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었다고, 용비어천가의 무대이기도 하다.



효성교동아파트



무애사

전주전통문화센터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서 운영하는 곳.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한데 어우러진 공간.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어 남녀노소, 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한옥마을의 중심이다.

㉠ 매주 월요일

한벽루

임금님의 수라상을 받아볼 수 있는 곳. 인간문화재가 손수 만든 반짝이는 방짜유기에 담겨진 음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다. 비빔밥과 한정식도 깔끔하다.

㉠ 한벽루 교자상 4인상 200,000원 / 유기비빔밥 9,000원

㉡ 오전 10시~오후 9시 ㉢ 063)280-7003

한벽극장

매일 저녁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곳.

㉠ 화~토요일 오후 7시30분(일요일 낮 공연)

화명원

전통혼례를 치르는 공간. 한해 80여 회의 전통 혼례가 치러진다고 날짜를 잘 맞추면 사모관대 입은 신랑과 연자곤 지 짙은 신부를 볼 수 있겠다.

놀이마당

휴일이면 널뛰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는 곳.

한벽당

1404년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최담이 지은 일종의 별장이다. 수많은 호남의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시 한 수를 읊었다고 하니 나그네도 맑은 물줄기를 굽어 보며 3행시라도 지어보면 어떨까?

전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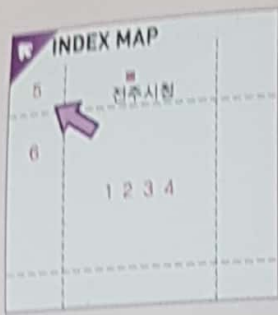
조선시대 선조 때 지어진 건축물.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성현을 모신 곳이다. 600년 넘은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정취를 더한다.

시냇물에 잠겨보자.



한벽교





02 남도음식의 향연 한옥마을 맛집

한옥마을을 둘러보느라 식사를 거르고 계시진 않으신지. 곳곳에 맛집들이 있으니 굶고 다니지 말자. 비빔밥과 한정식에 분식, 콩나물국밥까지 한옥마을 안에서 모두 맛볼 수 있다.



손님이 주무시는 시간에도
국수는 끓고 있습니다

웨이콩나물국밥

게란이 툇배기에 담겨 나오나 따로 나오나
에 따라 '삼백집 스타일'과 '웨이집 스타일'
로 나뉘는 전주 콩나물국밥. 따로 나오
는 게란을 다섯 스푼 넣고 김가루를 뿌려
먹으라는 아주머니의 조언을 따라 아삭한
콩나물부터 한 입

- 콩나물국밥 4,000원
- 24시간 ● 연중무휴
- 063)287-6980



3대를 이어가는
비빔밥



한국집

1954년 영업을 시작한 전주비빔밥의 원조
집. 그래서 나이 지긋한 단골 손님이 많다.

- 비빔밥 8,000원
- 오전 7시30분~오후 9시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사흘씩
- 063)284-2224



종로회관

2층에 올라가면 경기전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육회
를 올린 전통 전주비빔밥이 주메뉴.

- 육회비빔밥 10,000원
- 오전 9시30분~밤 10시
- 설, 추석 명절 당일
- 063)288-4578



찾아가기

전주역에서 12, 60, 79, 105번 버스 전통성당 앞 하차

한상떡벌어지네

교동한식

13가지 요리를 즐기고 나면 16가지의 반찬이 밥과 함께 나온다. 둘이 먹기에는 엄청 부담스러운 내용. 친구와 여럿이 갔다면 허리띠 풀고 준비운동을 마친 후 먹어야 할 듯.

한정식 한상 100,000~120,000원

오전 11시~오후 9시 설, 추석 명절 전날 063)288-4004



양푼이 국수



교동국수

양반의 고장 전주에서 양푼에 담겨나오는 국수라니. 그러나 국수 맛은 점잖다.

멸치육수에 호박, 당근이 곁들여 올려진 물국수와 아채와 콩나물이 듬뿍 들어가 매콤하게 비벼 먹는 비빔국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

물국수 2,500원 / 비빔국수 3,000원

오전 11시30분~오후 8시30분

매월 첫째 주 수요일 063)288-1703

전통 한옥에서 즐기는 한정식



오목대사랑채

발효음식을 맛볼 수 있는 한정식 상차림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매주 토요일 판소리 공연이 볼거리인 곳이다.

사랑채정식 1인 10,000원 오전 11시30분~오후 9시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063)232-8533



베테랑칼국수

전주에서 베테랑 칼국수를 모르면 간첩이다. 들깨가루를 얹은 진한 칼국수는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는다. 곁들여 먹는 만두도 맛있다.

칼국수 3,500원 / 만두 3,000원

오전 10시~밤 10시 매주 일요일 063)285-9898

한벽집



오모가리는 찌개를 담은 독배기보다 조금 큰 웅기 그릇. 거기에 만물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것이 오모가리탕이다. 우거지가 듬뿍 들어간 매운탕이 비리지 않고 진한 맛이다. 생선보다는 우거지와 국물만으로도 가마솥에 지어진 밥 두 공기 부족하다.

오모가리탕 小 30,000원 / 공깃밥 1,000원 오전 9시~밤 10시

연중무휴 063)284-2736



여유를 즐기자

한옥마을의 정취를 여유롭게 느끼고 싶다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방법. 절 고운 마루
앞에 마셔도 좋고 운치 있게 마당에 앉아도 좋겠다. 전통차라고 어려워 말고 마음을 열
보자.



더 스토리

한옥마을이라 더욱 독특해 보이는 커피 전문점. 직접 구운 유기농 쿠키와 조각 케이크도 맛볼 수 있다.

- ☎ 각종 커피 2,300~3,800원 /
쿠키(1개) 500원 / 조각케이크 1,500원
- 🕒 오전 10시~밤 10시 🏠 연중무휴



다로

녹차와 보이차를 마실 수 있는 시원한 공간.

- ☎ 녹차·보이차 5,000원
- 🕒 오전 11시~밤 11시
- 🏠 연중무휴 ☎ 063)284-8886



예담차집

“길 가다가 머리가 아주 짧거나 아주 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명상과 관련된 책을 읽을 수 있는 찻집이다. 특히 무명대사가 말려 보내는 쑥차와 다래차가 자랑이라고.

- ④ **쑈차 5,000원 / 다래차 6,000원**
- ⌚ **오전 10시~밤 11시**
- ☎ **연중 무휴** ☎ **063)287-8737**



찾아가기

전주역에서 12, 60, 79, 105번 버스 전통성당 앞 하차

다호

여기저기 놓여있는 골동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당을 산책 중인 수탉이 이 집의 주인인 듯하다.

- ☎ 각종 전통차 5,000~6,000원
- 🕒 오후 2시~밤 11시
- ☎ 연중무휴 ☎ 063)288-5092

오목대가는길

이름이 정겨워 문을 열고 싶게 만드는 집. 직접 우려낸 오미자와 쌍화탕이 전문. 옹기술에 끓인 쌍화탕을 돌 잔에 내는데 원기회복에 그만이라고.

- ☎ 오미자차 5,000원 / 쌍화탕 6,000원
- 🕒 낮 12시~오후 9시
- ☎ 매주 월요일 / 설, 추석 명절 당일 ☎ 063)231-0212

달새는 달만 생각한다

손님이 앉을 자리는 어딜까 싶게 작은 공간에 갤러리처럼 미술작품을 전시해 놓은 독특한 집. 사장님이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싶다면 여기로!

- ☎ 각종 차 5,000~7,000원
- 🕒 오전 11시~밤 11시
- ☎ 연중무휴 ☎ 063)287-2336

고신

아담한 정원이 있는 찻집. 과일을 말려서 우려 먹는 고신차를 마셔보자.

- ☎ 고신차 8,000원
- 🕒 오전 11시~밤 11시
- ☎ 연중무휴 ☎ 063)232-8922

교동다원

인스턴트 차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차는 다 마실 수 있다. 중국차와 인도의 짜이까지... 작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어 있는 한옥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다.

- ☎ 각종 차 5,000~7,000원
- 🕒 오전 11시~밤 11시
- ☎ 연중무휴 ☎ 063)282-7133

형호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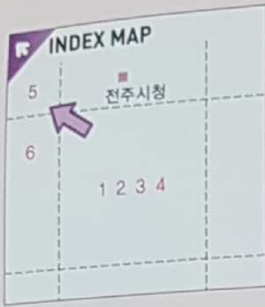
독특하게 팔 칼국수를 내는 찻집. 물론 전통차도 마실 수 있다.

- ☎ 전통차 5,000원 / 팔칼국수 5,000원
- 🕒 오전 11시~오후 9시
- ☎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 063)282-8687

학인당 내 선다원

100년 전통을 가진 한옥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학인당 내의 찻집. 아직도 안채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차를 마실 수 있는 다원을 운영하고 있어 아름다운 한옥 내부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 ☎ 전통차 5,000~6,000원
- 🕒 오전 11시~밤 10시
-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 063)284-9929



04

옛것을 느끼며 한옥마을 생활체험

한옥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자. 하얀 창호지 바른 문으로 달빛이 스며 드는 밤과 구들장에 지진 등짝이 개운한 아침을 만날 수 있다.



설예원

전통생활 문화교육관으로 생활예절, 다도예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구분	객실요금	정보
안채 해인자실	80,000원	3인 기준, 조식제공, 다도체험, 단독화장실
별채 죽로자실	80,000원	3인 기준, 조식제공, 다도체험, 단독화장실
별채 감로자실	100,000원	4인 기준, 조식제공, 다도체험, 단독화장실

☎ 063)288-4566



아세헌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고 배울 수 있는 아담한 한옥.

구분	객실요금	정보
풍류당	100,000원	4인 기준, 조식+녹차, 우리 소리 감상
목영당	60,000원	2인 기준, 조식+녹차, 우리 소리 감상
취접당	60,000원	2인 기준, 조식+녹차, 우리 소리 감상
백운당	60,000원	2인 기준, 조식+녹차, 우리 소리 감상
부용당	60,000원	2인 기준, 조식+녹차, 우리 소리 감상

☎ 063)287-1677



찾아가기

전주역에서 12, 60, 79, 105번 버스 전동성당 앞 하차

한옥생활체험관

전주시에 운영하는 한옥생활 체험관. 행랑채와 사랑채, 안채까지 조선시대 양반의 가옥이 이려했구나 상상이 된다. 구들을 갖춘 방도 있고 모든 투숙객에게 아침식사가 제공된다. 자전거도 무료로 빌려주니 이른 아침 한옥마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구분	객실요금	정보
특실(선비방)	120,000원	2인 기준, 조식제공, 전통구들과 거실, 공동화장실
특실(규수방)	100,000원	2인 기준, 조식제공, 전통구들과 거실, 공동화장실
준특실 1	90,000원	3인 기준, 조식제공, 단독화장실
준특실 2	80,000원	2인 기준, 조식제공, 단독화장실
일반실	60,000원	2인 기준, 조식제공, 공동화장실

(1인 추가시 10,000원) ☎ 063)287-6300



동락원

전주기전여자대학 부설 전통생활체험관이다. 전통음식체험, 한지공예체험을 할 수 있고 한복 입어보기, 절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찾아오는 외국인도 많다.

구분	객실요금	정보
안채 1호실	150,000원	6인 기준
안채 2호실	90,000원	3인 기준
사랑채 1호실	90,000원	2인 기준
사랑채 2호실	90,000원	3인 기준
행랑채	50,000원	2인 기준

☎ 063)287-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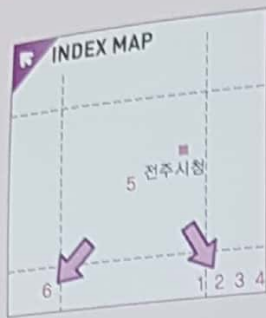
양사재

전주 향교의 부속 건물로 한옥의 자연스런 모습이 남아있는 곳. 후백제 이후 잊힌 전북 지역의 자연차 발을 볼 수 있다.

구분	객실요금	정보
구들방(동절기)	60,000원	
구들방(하절기)	50,000원	
분합방(동절기)	50,000원	
분합방(하절기)	50,000원	
3인 가족실	55,000원	
4인 가족실	65,000원	

☎ 063)282-4959





05 전주국제영화제는 여기서 영화의 거리

전주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객사길.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거리가 객사길 끝과 만난다. 쇼핑타운과 대형서점, 극장가가 어우러진 젊음의 거리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전주의 명물

오원집



김밥 250원, 국수 300원으로 시작한 포장마차가 오늘에 이르렀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던 아들 나이가 올해로 스물여덟. 통행금지 야식을 먹을 수 없던 시절 택시기사인 남편이 배달을 해주면서 야식집으로 유명해졌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고생이 심했지만 연탄불에 돼지고기 한 점 구워 술잔을 기울이는 단골들 덕에 오원집이 버틸 수 있었다는 설명이 눈물겹다.

☎ 돼지 연탄구이 3,000원 / 가락국수 · 김밥 1,500원

🕒 오후 5시~새벽 5시 📞 연중무휴 ☎ 063)275-1123

모두가
반하는 맛



한양소바

'메밀소바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친다. 우선 푸짐한 양에 놀라고 쫄깃한 면발에 놀라고 그냥 마셔도 시원한 다시국물에 놀란다. 콩국수 맛도 일품이라 콩국수 싫어하는 사람도 콩국수 마니아로 변신하겠다. 전주에서 비빔밥만 먹고 가면 크게 후회하리.

☎ 메밀소바 · 콩국수 4,000원 🕒 오전 10시~밤 11시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이틀씩 ☎ 063)251-1377



영화의 거리

반경 내 이렇게 많은 극장이 모여있는 곳은 전주가 전국 유일한 곳이 아닐까? 극장 앞마다 미키마우스나 친절한 금자씨의 모형이 느긋하게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독특하다.

30년 전통의 냉면집

원조함흥냉면



전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냉면집. 맛집이 넘치는 전주에서 30년 넘게 냉면을 만들어 왔으니 그 맛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냉면을 먹고 난 후 원두커피 한 잔 들고 나와 아담한 정원에서 땀 식히는 맛에 이 집을 찾는다.

☎ 회냉면 5,000원 🕒 오전 11시~밤 10시

📞 설, 추석 명절 당일 ☎ 063)282-9946

상호의 달인이 있다

파베기



빠른 속도로 파베기를 만들어내는 달인을 만날 수 있는 집. 각종 도넛과 파베기도 맛있지만 바삭바삭한 파베기 과자가 질리지 않고 맛나다.

☎ 파베기(4개) 1,000원 / 팔도넛(3개) 1,000원 / 파베기 과자(한봉지) 2,000원

🕒 오전 10시~오후 9시 📞 따로 없음(사장님 컨디션 따라) ☎ 011-9629-3109

돼지박사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라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해 1인분 2,900원이다. 싸고 푸짐하게 한 잔 하기에 딱인 집. 양념 삼겹살에 밥까지 볶아 먹어도 1인당 5,000원을 넘지 않는다. 입가심으로 친구랑 누룽지를 나눠 먹어도 두 사람이 10,000원 너무 고맙다.

☎ 양념삼겹살 2,900원 / 비빔공깃밥 1,500원 / 누룽지 2,000원

🕒 오전 11시~새벽 6시 📞 연중무휴 ☎ 063)287-8255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찾아가기

- 전주역에서 12, 60번 버스 쌍용화재 앞 하차
- 한옥마을 전통성당(130p) 앞에서 도보로 630m

전주 야경들에서 사귀는 레스토랑



팀(Team)

넓은 실내에 등받이 높고 묵직한 소파,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다.

- 파스타 9,000~13,000원 / 피자 9,500~13,000원 / 돈가스 9,000원
- 오전 11시~오후 11시
- 063)285-5111
- 연중무휴



객사길 야경

루미나리에가 빛나는 객사길은 밤이 대낮보다 더 밝다. 축제는 없어도 축제 분위기에 취해보자.



옴시롱감시롱

줄서서 먹는 떡볶이집. 매콤한 떡볶이 한 입 먹고 달콤한 고구마로 입 안을 달래주고 오징어 튀김 소스에 적셔 또 한 입.

- 떡볶이 · 튀김 2,000원 / 김밥 2줄 2,000원
- 오전 10시~밤 10시
- 063)231-7367



전주객사

세워진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조선시대 외국의 사신이나 출장을 온 중앙의 관원이 머물렀던 곳이다.

현판에 쓰인 '풍패지관'은 한고조의 유방이 출생한 곳인 풍패와 같이 전주가 태조 이성계의 본향임을 뜻한다고, 객사 마루에 걸터 앉아 친구를 기다리거나 소풍 나온 기분을 내려 감밥을 나눠 먹는 젊은 이들의 모습이 여유롭다.



효자문

간장 양념에 재워 둔 갈비로 탕을 끓이는 집. 대형 갈비탕집 주방마다 중국산 갈비탕 통조림이 쌓여있는데 이 집만큼은 믿어도 되겠다. 갈비탕이 국물 반, 고기 반이다.

- 갈비탕 7,000원
- 오전 11시~오후 9시30분
- 063)284-4236



독특한 갈비탕





06 맛따라 길따라 전통 맛 지도

어디를 가도 기본은 한다는 전주의 식당들. 그중에서도 전주시민에게 칭찬받는 집들을 골랐다. 일단 졸라 맨 허리띠를 풀고 다이어트 계획도 잠시 미루자. 여행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무슨 재미인가, 그것도 맛의 고장 전주에서.



전일수퍼

가맥의 원조집. 가맥이란? 가게에서 마시는 맥주! 이제는 수퍼마켓이라기보다 술집에 가깝다.

☎ (063)284-0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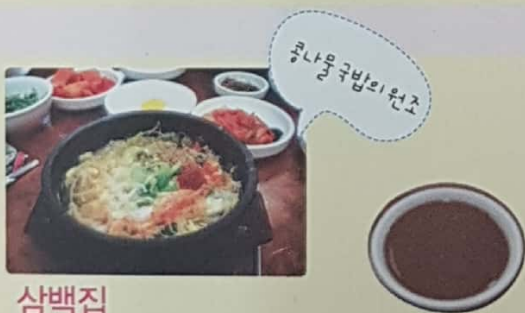


그린수퍼

가맥은 전주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가볍게 한 잔 하기에 좋은 곳. 전주 가맥의 전통을 이어받은 '편맥' (편의점에서 마시는 맥주)은 전국적으로 체인이 있으니 그 기분을 직접 체험해 보자.

☎ 맥주 수퍼가격 1,700원 / 황태포 6,000원 / 계란말이 5,000원

🕒 오후 1시~새벽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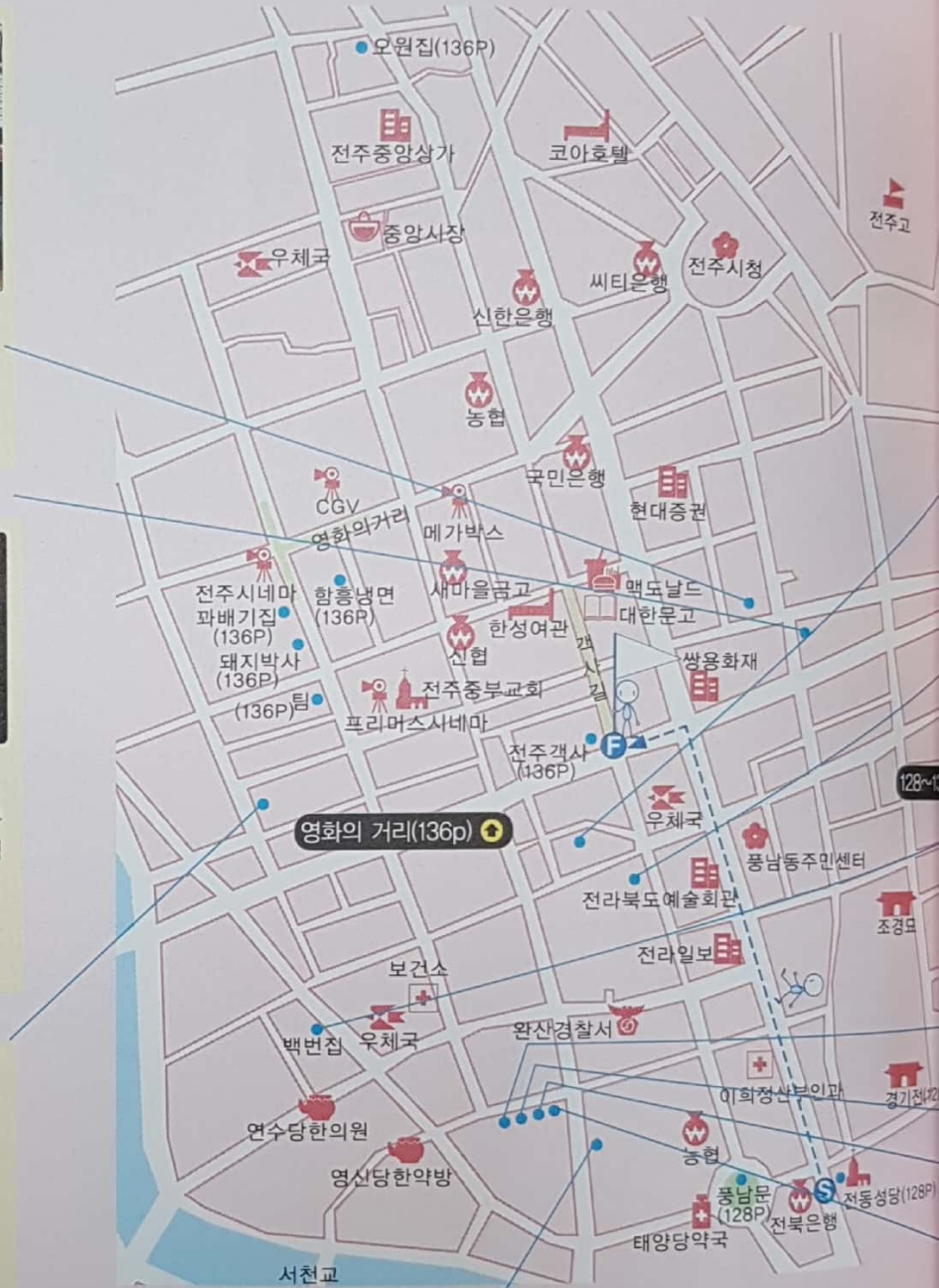


삼백집

이른 새벽 삼백인분의 콩나물국밥을 팔기 시작해 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삼백집. 콩나물국밥을 팔던 할머니는 안 계시지만 그 명성이 자자해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 많다. 계란이 국밥에 얹어져 나오는 것이 '삼백집 스타일' 모두 한 잔도 꼭 마셔보자.

☎ 콩나물국밥 4,000원 / 모주 1,500원

🕒 24시간 📞 연중무휴 ☎ (063)284-2227



반야돌술밥

은행을 비롯한 갖은 재료를 넣어 지은 돌술밥에 양념장을 얹어 쓱쓱 비벼 먹으면 잘 찾아왔구나 뿌듯해진다. 돌술밥에 내는 수정과 반찬으로 나오는 덕덕구이도 맛있고 후식으로 내는 수정과 맛도 일품이다. 돌술을 끓여서 달은 숟가락이 이 집 내공을 말해준다.

☎ 돌술밥 7,000원 🕒 오전 9시~오후 9시30분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 (063)288-3174

어머니에게서 딸도 이어
지는 전주비빔밥의 전통



성미당

함께 먹기 좋아하고, 빨리 먹기 좋아하고, 배부르게 먹기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가 탄생시킨 비빔밥.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으로 꼽히는 비빔밥이 되기까지 전주비빔밥의 역할이 컸다. 이런 전주에서 비빔밥을 안 먹을 수 있나. 그중 전주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두 집 중 하나가 바로 성미당이다. 미리 한번 비벼져 나오는 육회비빔밥이 주메뉴. 유기그릇에 담겨 나오는 비빔밥의 오방색이 너무 예뻐서 선물리 손가락을 휘둘러 수가 없다.

☎ 육회비빔밥 10,000원 / 전주비빔밥 8,000원

🕒 오전 9시~오후 9시30분 📞 설, 추석 명절 당일 ☎ 063)287-8800



전주시민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비빔밥 집



가족회관

성미당이 육회비빔밥이라면 가족회관은 익힌 고기를 올리는 전통 전주비빔밥이다.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깔끔한 실내와 비빔밥에 대한 오마주(?)로 걸어 놓은 액자가 재미있다. 비빔밥을 시키면 딸려 나오는 계란탕도 일품이다.

☎ 전주비빔밥 8,000원 🕒 오전 11시30분~오후 9시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나흘씩 ☎ 063)284-2884



백반집

백반의 주막

전주 향교의 어른산들이 지어준 멋진 이름의 한정식집. 어머니가 하던 식당을 아들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1년에 쓰는 고추가 천오백 근이라니 이곳을 찾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도 안 된다. 서른 가지 넘는 요리가 한 상 띄 벌어지게 차려지면 음식마다 갖든 사연을 들어가며 먹어야 제맛이니 사장님께 설명을 부탁해 보자.

☎ 한정식(4인상) 80,000원부터 🕒 오전 11시~밤 11시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사흘씩 ☎ 063)286-0100



한발식당

"전주에서는 아무 백반집이나 들어가도 상이 좁을 정도로 반찬이 나온다"는 소문. 진짜다. 특히 옛 도청 주변의 백반집들이 그렇다. 1인분씩 돌술에 지어져 나오는 밥도 황송한 집 구수한 송늬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다.

☎ 백반 5,000원 🕒 오전 9시30분~밤 10시 📞 설, 추석 명절 당일 ☎ 063)284-3367

백반집
그 맛



한국식당

깔끔한 실내에 반찬 가짓수가 장난이 아니다.

☎ 백반 5,000원 🕒 오전 9시~오후 9시

📞 설, 추석 명절 당일 ☎ 063)288-8272



죽림집

반찬 가짓수는 적어도 반찬 하나하나마다 옛 맛을 고수하는 집.

☎ 백반 5,000원 🕒 오전 9시~오후 9시

📞 설, 추석 명절 당일 ☎ 063)284-4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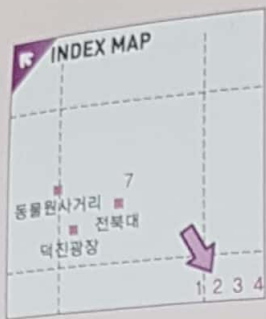


지연식당

직원도 두지 않고 10년 넘게 혼자서 손님을 맞는 아주머니의 얼굴은 늘 미소를 띠고 있다. 그 친절함 마음씨가 반찬마다 배어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 백반 5,000원 🕒 오전 9시~밤 10시

☎ 연중무휴 ☎ 063)288-8272



07

젊음의 해방구 전북대 앞

대학가답게 저렴한 가격의 식당과 술집이 즐비한 것도 고맙지만 4만5천 평 규모를 자랑하는 덕진공원이 있고 다채로운 소리공연이 펼쳐지는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과 전주 동물원이 있어 여행자를 즐겁게 하는 이곳. 21세기 전주의 새로운 전통은 이곳을 중심으로 커가고 있다.

덕진공원



데이트 코스로 이름난 덕진공원은 드넓은 호수를 끼고 있다. 호수를 따라 걸으면 호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현수교를 건너 아름다운 정자 '연지정'을 만날 수 있고 초록이 싱그러운 연밭도 만난다.



고집한 감자탕



다락방

감자탕에 국물보다 고기가 훨씬 많다. 뚝배기 밖으로 넘치는 돼지뼈를 뜯어먹다 보면 배가 부른다. 그래도 국물 맛을 안 볼 수 없다.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밥 한 공기까지 뚝딱. 참고로 식당은 다락방에 있지 않고 단층 건물이다.

☎ 감자탕 6,000원 ☎ 오전 9시30분~밤 10시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 063)272-1829



마요네즈 말고 초고추장



아랫목김밥

주방에 김밥 마는 아주머니만 세 분이다. 학교 앞치고는 비싼 가격의 김밥집에 손님이 가득한 이유는? 당연히 맛이 좋아서다. 마요네즈 대신 초고추장이 뿌려진 참치김밥이 인기 메뉴.

☎ 참치김밥 2,500원 ☎ 오전 8시~새벽 5시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아불씨 ☎ 063)251-1829





07

젊음의 해방구 전북대 앞

대학가답게 저렴한 가격의 식당과 술집이 즐비한 것도 고맙지만 4만5천 평 규모를 자랑하는 덕진공원이 있고 다채로운 소리공연이 펼쳐지는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과 전주 동물원이 있어 여행자를 즐겁게 하는 이곳. 21세기 전주의 새로운 전통은 이곳을 중심으로 커가고 있다.

덕진공원



데이트 코스로 이름난 덕진공원은 드넓은 호수를 끼고 있다. 호수를 따라 걸으면 호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현수교를 건너 아름다운 정자 '연지정'을 만날 수 있고 초록이 싱그러운 연밭도 만난다.

포집한 감자탕



다락방

감자탕에 국물보다 고기가 훨씬 많다. 독배기 밖으로 넘치는 돼지뼈를 뜯어먹다 보면 배가 부른다. 그래도 국물 맛을 안 볼 수 없다.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밥 한 공기까지 뚝딱. 참고로 식당은 다락방에 있지 않고 단층 건물이다.

- ☎ 감자탕 6,000원 ☎ 오전 9시30분~밤 10시
-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 063)272-1829

마요네즈 말고 초고추장은



아랫목김밥

주방에 김밥 마는 아주머니만 세 분이다. 학교 앞치고는 비싼 가격의 김밥집에 손님이 가득한 이유는? 당연히 맛이 좋아서다. 마요네즈 대신 초고추장이 뿌려진 참치김밥이 인기 메뉴.

- ☎ 참치김밥 2,500원 ☎ 오전 8시~새벽 5시
- ☎ 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이틀씩 ☎ 063)251-1829



찾아가기

전주역에서 337번 버스
전북대 후문 하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소리축제가 열리는 장소, 각종 공연에서 미술 전시까지 복합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언제 가도 문화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다.



전주동물원

전주 시민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원. 지방의 동물원으로는 유일하게 희귀동물들을 포함해 많은 동물이 살고 있다. 안에 놀이공원도 있어 휴일이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들이 온 어린이들로 초만원이다.

㉠ 하절기(3~10월) 오전 9시~오후 7시 /

동절기(11~2월) 오전 9시~오후 6시

㉡ 어른 1,300원 / 어린이 400원 ㉢ 연중무휴



조경단



전북대 햄

전북대에서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전북대 동물자원학과가 공장 설비를 갖추고 햄을 생산해 내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 햄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북대 햄'. 저렴한 가격의 햄샌드위치는 인기 폭발이다.

㉠ 햄샌드위치 2,800~3,800원 ㉡ 평일 오전 9시~밤 10시 / 주말 오전 10시~밤 10시

㉢ 설, 추석 명절 연휴 ㉣ 063)270-3960



옛날 땡땡이 상추튀김

상추를 튀겨 먹는다고? 아니죠~. 튀김을 상추에 싸서 먹는 독특한 방식의 튀김 전문점이다. 아삭한 상추에 오징어 튀김을 싸서 먹으면 기름기가 느껴지지 않아 자주 먹게 된다.

㉠ 상추 튀김(1인분) 2,500원 ㉡ 오전 11시~밤 12시 ㉢ 063)273-0903



망고

친구와 함께라면 아담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져, 유가농으로 키워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편안함이 지나쳐 나그네의 도리를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 커피 4,000원 ㉡ 오전 10시30분~밤 12시 ㉢ 연중무휴 ㉣ 063)251-3003

유가농 커피



갤러리공유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공유'라는 이름이 멋스러운 갤러리. 전시실과 함께 카페와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다. 예향의 고장 전주에 꼭 어울리는 공간이다.

㉠ 063)253-5056



쉐어(share)

㉠ 각종 커피, 음료
4,000~6,000원

㉡ 오전 11시~밤 11시

㉢ 연중무휴

차 한잔의 여유



08 간판만 봐도 어~ 취한다 삼천동막걸리촌

물 좋은 전주는 막걸리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시내 곳곳에 막걸리촌이 만들어진 것은 당연한 일. 그중에서도 삼천동은 전국 최대규모의 막걸리촌으로 30여 곳이 장사를 하고 있다. 전주시가 발 벗고 나서 막걸리촌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삼천동 막걸리촌은 막걸리를 사랑하고 막걸리집의 푸짐한 인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지트다. 막걸리 한 주전자에 안주 한 상이 12,000원. 모든 집이 동일한 가격이고 문 열고 닫는 시각도 비슷하다.



찾아가기

전주역에서 12번 버스 시립도서관 앞 하차, 한옥마을 전동성당 앞에서 3-2, 12, 69, 88 시립도서관 앞 하차



소문난 막걸리

전라도 장흥이 고향인 주인 아주머니는 안주 하나도 그냥 내는 법이 없다. 제철 해산물에 직접 담근 김치까지, 가짓수는 적어도 안주의 질만큼은 특급이다. 일부러 굴보쌈과 홍어무침 안주를 먹기 위해 찾는 손님도 많다고.

☎ 063)227-1996



두 여인 막걸리

해물 안주가 다양한 집 두 여인이 궁금하지 않은가? 넉넉한 마음씨의 이모들이다.

☎ 063)221-0271



전주 막걸리

매스컴에 자주 소개된 집. 그래서 젊은층이 많고 안주를 준비하는 아주머니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 063)225-0808



사랑채 막걸리

시화 판넬이 가득 걸린 분위기가 있는 막걸리집.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안주 삼아 시원한 편 낭송해 보자.

☎ 063)225-5522



전주의 막걸리

주전차에 부어지기 전의 막걸리 병. 전주의 막걸리는 하도 소비가 빨라져서 방부제를 쓰지 않는다. 비사벌 막걸리와 대성 막걸리로 대표되는 전주의 막걸리 중 삼천동 막걸리촌은 거의 대성 막걸리를 공급받다고. 텃밭하지 않고 텃밭도 깔끔해 여성들도 카테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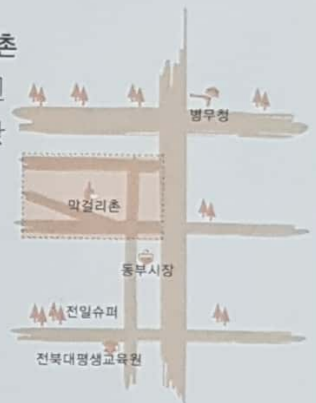


walking in jeonju

전주 여행의 밤을 책임지는 막걸리촌 "다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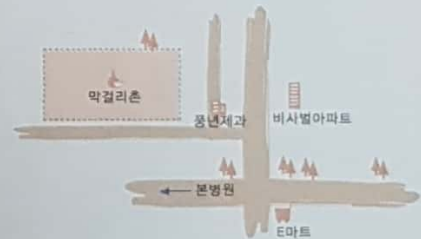
01 경원동막걸리촌

한옥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어 도보로 찾아가기 좋다.



02 서신동막걸리촌

삼천동막걸리촌과 쌍벽을 이루는 곳이다. 한옥마을 전동성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3-1, 3-2, 5-1, 5-2, 61, 105번 버스 이용 서신동 정류장 하차



03 평화동막걸리촌

전동성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1-1, 1-2 버스 이용 평화 2동 주민센터 앞 하차



04 효자동막걸리촌

변화가에 위치해 있어 젊은이들의 발길이 잦은 곳. 한옥마을에서 택시 이용 시 3,000원 내외

